



예루살렘의 테러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 받는 아픔”

©아제르 인트레이터, 2008 년 7 월 3 일

제 막내 아들 아미엘은 어제 (7 월 2 일 수요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테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바는 이렇습니다.

저는 중앙 버스 터미널을 나와 시내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라헤이 이스라엘 길과 자파 길이 만나는 곳에 있었죠. 말라헤이 이스라엘 길에서 커다란 불도저가 나오더니 어떤 차 위로 밟고 지나가 빈대떡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도저는 광폭한 행위를 계속하여 또 다른 파란 색의 차를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파란 차의 운전자는 공포에 질려 급회전을 했습니다.

저는 오른 쪽에 있었고, 버스 한 대가 왼쪽에 있었습니다. 불도저는 자파 길로 접어들어 버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위협을 피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운전하여 우회전했고, 정류장을 들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구하려 이리저리 뛰었죠. 불도저는 다시 후진하여 계속 운전해 갔습니다.

한 젊은 정통 유대인이 저를 지나가 버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기! 무기 가진 사람 없어요?”

불도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의 오른쪽을 들이 받고, 후진하여 집어 들더니 측면이 바닥에 닿도록 던져버렸습니다. 버스에는 사람이 가득 타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100 번(경찰 신고)을 눌러 봤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조대의 자원 봉사자였기 때문에 저는 101 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101: "여보세요, 적(赤) 다윗의 별입니다."

나: "자과 길에 테러 공격이 일어났어요! 트랙터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어요."

101: "자과 길 어디요?"

나: "버스 정류장에서 오도 보면 보일 거예요. 중앙 버스 터미널 옆에 자과 길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101: "지금 출발합니다."

무장한 시민들, 군인들과 경찰들이 총을 장전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뒤집혀진 버스에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피를 뒤집어 쓴 채 울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처치를 받고 있던 한 여인의 다리는 피범벅이었고, 발가락들이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피에 물든 한 남자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 내 어깨!" 그러면서 테러리스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해 괜찮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총소리 들리세요? 테러리스트를 쏘고 있어요."

무기를 달라 외쳤던 젊은 종교인은 휴가 나온 특별 공격대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어떤 이에게 권총을 빌리는 데 성공하여, 맨손으로 불도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와중에 테러리스트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테러리스트를 세 번 쏘 죽여 시켰고, 모든 난동과 살인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죽은 세 명과 부상 당한 십여 명을 인해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라헬"은 여전히 무분별한 사탄의 폭력 앞에 "자식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렘 31:15)." 예수아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눅 19:41). 예수아 때에 유아들이 살해되었으나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던 것 (마 2:18)과 똑같이, 오늘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세상이 자신들을 증오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은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 24, 막 13). 또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롬 11:26). 마지막 때의 환란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두 같은 곳에서 말미암습니다.

예레미야 30:7 □ "야곱이 당하는 환란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12:1 □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바울 (샤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수아께서 마지막 환란을 이르실 때는 모두 (다른 구절도 있지만) 이 구절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환란과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배웁니다.

1. 마지막 때엔 환란이 있을 것이다.
2. 그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3. 우리는 그 때 이 곳에 있어 그 구원을 도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과정에 있다 보니, 마귀는 겁에 질린 채 분노하고 있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 12:12). 이스라엘의 구원은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이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약 2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부흥이 있을 것은 고사하고 그 민족이 나라로 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슬람 지하드와 전세계적 반유대주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고, 그 땅에는 만 여명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찬양, 예언 가운데 연합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며, 그에 따라올 환란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는 거룩한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1:10-11 □ 네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안식일 만찬을 나누기 전, 가족으로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믿음과 동역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번역: 고병현

Shaul Syunghyun Go